신앙감정론과 관련 있는 편지 모음(길레스피와의 왕복 서신)

편지 · 편지 1: 길레스피가 에드워즈에게 (1746. 11. 24)

『신앙감정론』 부록 '신앙감정론과 관련 있는 편지 모음(길레스피와의 왕복 서신)' 중 편지 1, 인쇄 650~660쪽 (재료는 보스턴의 저작을 묻는 대목에서 끊겨 있음)

🧭 흐름 한눈에

스코틀랜드 카아녹의 목사 길레스피가 『신앙감정론』을 읽다가 에드워즈에게 처음 쓴 편지다. 그는 먼저 자신이 부흥을 변호하는 에드워즈의 편임을 밝힌다. 이어 '주님이 주신 것이라 여겨지는 인상'을 경계한 에드워즈의 경고에 크게 찬성한다. 그다음 본론으로 들어가 책의 두 대목에 이의를 제기한다. 첫째, 영적인 빛이 없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촉구하면 안 된다는 대목은 '믿을 수 있는 능력'과 '믿어야 할 의무'를 섞었다는 것이다. 둘째, 참 성도는 회심 전과 구별이 안 될 만큼 퇴보할 수 없다는 대목은 다윗과 솔로몬의 예와 경험에 비추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사탄에게 끝없이 시달리는 사람과 퇴보한 채 죽는 성도에 대한 목회적 질문을 덧붙인다. 이 편지에는 질문만 있다. 에드워즈의 답은 이 재료에 없다.

🪪 표지 카드

(표지 장 아님)

📜 절별 정리

📜 1. 인사: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길레스피는 1735년 무렵 노샘프턴 부흥에 관한 에드워즈의 해설을 읽은 뒤로 그의 사역을 존경해 왔다고 말한다. 뉴잉글랜드의 최근 부흥을 다룬 두 저작에도 크게 만족했다고 한다. 특히 『부흥론』(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 of Religion in New England)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달랐던 부분에서 에드워즈와 생각이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오랫동안 편지를 쓰려 했으나 미뤄 온 게으름을 자책하며 기도와 우정, 정기적인 서신 교환을 청한다. 자신이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로브 선생과 로버트 아버크롬비 목사가 보증해 줄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 인사는 뒤에 이어질 비판이 적대가 아니라 '같은 편 안에서의 질문'이라는 틀을 미리 세워 둔다.

1. 1735년 노샘프턴 부흥 해설 때부터 존경
2. 『부흥론』에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발견
3. 기도와 우정, 서신 교환을 청함
4. 부흥 변호자임을 로브·아버크롬비가 보증
5. 이후 비판은 '같은 편'의 질문이다

> **(이 절에는 인용 구절 없음)**
> 인사와 관계 맺기 단락

📜 2. '인상'은 마귀의 손에 쥔 운전대

'인상'은 성경 구절이나 다른 방식으로 마음에 박혀서 주님이 주신 것처럼 여겨지는 생각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사실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 주셨다고 믿는 경우다. 길레스피는 여러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해롭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아 왔다. 그런데 지혜롭고 학식 있는 신학자들까지 이것을 영적 체험이나 기도 응답, 주님께 총애받는 증거로 여겨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것을 '마귀의 손안에 있는 운전대'라고 경고한 데 기뻐한다. 다만 그 주제를 더 다루려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아쉬워한다. 그는 이 주제가 책 한 권을 쓸 가치가 있으며, 이전에 정식으로 공격받은 적이 없어 사탄이 기뻐해 왔다고 말한다. 『신앙감정론』이 이 주제를 '여기저기서' 다루어 반갑지만, 아직 끝까지 읽지 못해

1. 인상 =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는 마음속 예감
2. 경건한 학자들도 총애의 증거로 착각
3. 에드워즈: '마귀의 손안에 있는 운전대'
4. 책 한 권 쓸 만한 주제라고 촉구
5. 『신앙감정론』은 아직 다 못 읽었다고 밝힘

> **(이 절에는 인용 구절 없음)**
> 길레스피는 경험과 관찰로 위험을 증언한다

📜 3. 첫 번째 질문: 빛이 없어도 믿어야 하지 않는가 (초판 263쪽)

길레스피가 말하는 쪽수는 이 번역서가 아니라 그가 읽은 당시 판본의 쪽수다. 그 대목에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빛이나 시각 없이도 확신 있게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터무니없는 가르침”이라고 썼다. 여기서 '영적인 빛·시각'은 성령이 비추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되는 깨달음을 말한다. 길레스피는 “빛 없이는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믿으려 하지 말라”는 뜻이라면, 죄인에게든 성도에게든 지지할 수 없다고 본다. 죄인은 언제나 즉시 믿으라는 명령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 명령은 살인 금지나 안식일 계명처럼 지금 당장의 의무다. 바울과 실라도 간수에게 “빛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 성도 역시 어둠 속에서도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책임을 면제받지 않는다. 길레스피는 에드워즈의 같은 쪽 앞 문장, 곧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나와서 믿어야 한다”와 이 말이 어떻게 조화되는지도 묻는다. 혹시 에드워즈가 말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좋다고 믿는 것'을 뜻했다면 그 점을 더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제안은 하나다.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것'과 '여전히 믿어야 하는 의무'를 분명히 구별했다면 오해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1. 빛 없이는 실제로 못 믿는다 → 동의
2. 빛 없으면 믿지 말라 → 반대

4. 사도들은 조건 없이 “믿으라”고 했다

5. 능력과 의무를 구별해 달라는 요청

> **요한일서 3:23**
>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므로 즉시 순종할 의무다
>
>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 **사도행전 16:31**
> 간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믿으라”고 했다 — 빛을 기다리라는 조건이 없다
>
>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 **이사야 50:10**
> 어둠 속을 걸어 빛이 없는 자도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라 — 바로 그 상황에서도 믿으라는 요구다 (번역본 표기는 '이사야 1장 10절'이나, 내용상 50:10의 오기로 보인다)
>
>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의 능력이나 합당함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이 의무를 규정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 4. 그 말은 오히려 연약한 성도를 넘어뜨리지 않을까 (초판 263쪽 26째 줄) ^

에드워즈는 빛이 없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길레스피는 이 말을 거꾸로 걱정한다. 죄의 길을 걸으며 주제넘게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주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 사람이 에드워즈의 말을 받아들이면 “목사님들도 지금의 나에게는 믿으라고 하지 않으니, 믿어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주제넘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그러면 불신앙 속에 머무는 것을 의무로 여기거나, 상황이 바뀔 때까지 믿으려는 시도를 헛되다고 여기게 된다. 길레스피는 에드워즈가 이렇게 쓴 이유를 주변의 율법폐기론자들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율법폐기론자'는 믿음을 내세워 새로운 순종과 거룩한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고, 오히려 훌륭한 복음 설교자들 가운데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이 책이 그곳에서는 뜻과 다르게 읽힐 수 있고, '탈퇴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큰 소란이 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는 정통 교사들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둠과 퇴보에서 구원받는 길”이라고 가르쳐 왔다고 덧붙인다.

1. 성령의 빛을 본인이 못 알아볼 수 있다
2. “나는 믿을 자격 없다”는 불신에 갇힐 위험
3. 율법폐기론자를 겨냥한 말로 짐작
4. 스코틀랜드는 오히려 행위 강조가 문제
5. 정통 가르침: 어둠 속 신뢰가 회복의 길

> **마가복음 10:17~23**
>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던 부자 청년 — 행위를 앞세우는 경향의 위험을 가리키려 붙인 구절
>
> 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

(암시) “악한 불신앙 때문에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 불신앙에 굴복하는 위험의 표현

>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5. 의심은 죄인가, 지배하는 죄는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인가 (초판 548쪽)

길레스피는 성도가 어떤 이유로든 자기 구원 상태를 의심해도 되는지 묻는다. 믿음에 반대되는 의심은 죄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믿음이 으뜸가는 은혜라면 불신은 으뜸가는 죄가 아니냐고 묻는다. 다만 성도가 지배력이 강한 죄에 빠졌을 때는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에드워즈는 이 대목에서 스토다드의 말을 근거로 들었다. “큰 유혹을 받더라도 죄의 길로 계속 행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충분한 이유”라는 말이다. 길레스피는 이에 맞서 오웬의 말을 소개한다. 강력한 유혹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 어떤 죄가 상당 기간 사람을 지배하면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즉 '강한 유혹 아래서의 넘어짐'은 예외로 남겨 둔 것이다. 그는 위선자에게 건방질 근거를 주는 일과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 사이의 중간 길을 걷기가 쉽지 않다고 고백한다. 셰퍼드는 극단까지 가지 않았으나, 스토다드의 인용문은 그 극단을 보여 준다고 본다. 그의 목회적 관찰은 이렇다. 내주하는 죄가 강해지면 새 피조물이 '재 아래서 타는 불'처럼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성도가 그 상태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 그러니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이상으로 나아가지 말자는 것이다.

1. 믿음에 반하는 의심은 죄 아닌가?
2. 스토다드: 죄의 길에 계속 = 구원 없음
3. 오웬: 강한 유혹 아래서는 예외
4. 위선자 방조와 성도 상처 사이 중간 길

이사야 64:6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는 백성의 고백 — 성도도 죄에 밀릴 수 있다는 오웬 주장의 근거로 추정

>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시편 65:3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 죄에 진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음

>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 6. 회심 전과 차이 없을 만큼 퇴보할 수 있는가 (초판 549쪽)

에드워즈는 “참된 성도는 회심 전의 모습과 회심 후의 삶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질 정도까지는 퇴보할 수 없다”고 썼다. 길레스피는 두 가지 이유로 이를 의심한다. 첫째, 성경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모태에서부터 성화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둘 다 성도였다고 확신한다면, 어린 시절보다 오히려 더 악해진 시기가 오래 있었다. 둘째, 천성이 좋고 신앙 교육을 받아 악을 싫어하며 자란 사람을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은 회심 전에도 이미 겉으로 덕스럽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뒤 안의 부패 때문에 특별한 유혹을 받는다면, 그 삶과 회심 전의 삶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기 경험도 그 반대를 보여 준다고 말한다.

1. 다윗·솔로몬은 오랫동안 악한 모습을 보였다
2. 모태 성화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
3. 착하게 자란 사람은 회심 전도 단정하다
4. 그런 사람의 퇴보는 전과 구별이 어렵다
5. 경험상 에드워즈 원리에 예외가 있다

베드로후서 2:20

>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 7. 맺는 말과 덧붙인 목회 질문

길레스피는 자신이 분수에 넘치게 말했을 수 있다고 고백한다. 첫 편지가 긴장된 주제를 다루게 된 것도 유감스러워한다. 그러나 이렇게 솔직히 쓰는 것은 에드워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의 '참된 친구들'에게 이 대목이 어떻게 읽히는지 알리려는 것이다. 263~264쪽을 검토한 어떤 목사가 누군가 편지를 써야 한다고 권했다는 사정도 밝힌다. 그는 자신을 성경 지식에서 어린아이라 부르며, 틀렸다면 숨김없이 바로잡아 달라고 청한다. 이어서 두 가지 목회 질문을 덧붙인다. 하나는 모든 수단을 써도 사탄을 생각 속에서 몰아내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다. 오래 부르짖어도 그리스도가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 조언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여러 해 그런 사람과 대화해 왔다. 다른 하나는 영광의 정도가 은혜의 정도에 비례한다면, 퇴보한 채 오래 지내다 죽는 성도에게 그 일이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는 질문이다. 편지는 보스턴의 『인간의 사중상태』, 은혜 언약론, 고난론, 성만찬론이 미국에도 알려졌는지 묻는 대목에서 재료가 끊긴다.

1. 비판의 동기는 사랑과 우정
2. 스코틀랜드 독자의 반응을 알리려 함
3. 틀렸다면 숨김없이 고쳐 달라고 청함
4. 사탄에게 끝없이 시달리는 사람의 문제
5. 퇴보 중 죽는 성도에게도 합력해 선인가

> **로마서 8:28**
> (암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 퇴보와 우울도 유익이 되는지 묻는 출발점
>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인상(impression)
성경 구절이나 갑작스러운 생각이 마음에 박혀 “하나님이 직접 알려 주셨다”고 여기는 것.

영적인 빛·시각
성령께서 마음을 비추어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실제로 보게 하시는 깨달음.

믿음의 의무와 능력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무)이지만, 실제로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능력)라는 구별.

율법폐기론자
믿음과 은혜를 내세워 새로운 순종과 거룩한 삶을 필요 없거나 덜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

탈퇴자(Seceders)
편지에서 이 책이 들어가면 '큰 소란'이 날 것이라 걱정하는 스코틀랜드의 한 무리(재료는 이름만 언급한다).

내주하는 죄
회심한 사람 안에도 여전히 남아 싸우는 죄의 성향.

영적 퇴보
성도가 은혜의 활력을 잃고 죄와 무감각으로 뒷걸음질하는 상태.

위선자
참 은혜 없이 신앙의 겉모습과 확신만 가진 사람.

확신

내가 구원받은 상태라는 믿음. 길레스피는 이것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구별하자고 한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이 편지는 부흥을 함께 지지하는 동료가 사랑으로 던진 질문이다. 비판이 아니라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이다.
- 핵심 요청은 '믿지 못하는 상태'와 '믿어야 할 의무'를 분명히 구별해 달라는 것이다.
- 길레스피는 위선자에게 핑계를 주는 일과 연약한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일 사이의 중간 길을 찾으려 한다.
- 인상을 계시로 여기지 말라는 경고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 에드워즈의 답은 다음 편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편지만으로 에드워즈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25편 · 사탄도 흉내 내지 못하는 것 · 길레스피에게 보낸 편지와 내 신앙 점검표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